

KFC NEWS



뿌리조합, 토요일 경부하요금 건의

중소기업중앙회와 뿌리산업조합이 국회를 방문하여 '토요일 경부하 전력요금 적용기한' 연장 및 '피크타임 적용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10월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 의원실을 방문하여 지난 7월말 종료된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1년중 7개월에 달하는 피크타임 기간중 6, 11월을 빼줄것을 건의했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은 준비된 자료를 설명하면서 "열처리업종 뿐만 아니라 단조 주조 등 뿌리산업은 소재비를 제하면 전기료만 제조원가의 30%이상 차지한다. (※삼흥열처리의 경우 토요일 중부하요금제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전기료가 연간7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매출액 200억 원과 맞먹는 것이다. 이런 원가구조로는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은 엄두도 낼 수 없다. 뿌리산업진흥을 말로만이 아닌 정책지원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방문에는 박순황 부품소재위원장, 중앙회 최윤규 정책본부장 등이 같이 했다.